

IOC “김연아 결혼, 아이스퀸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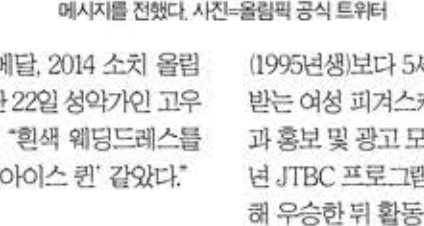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피겨 여왕’ 김연아(32)의 결혼을 축하했다.

IOC는 지난 25일 홈페이지에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스타 김연아가 아름다운 결혼 사진을 공유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또 올림픽 공식 트위터에도 “김연아 축하해!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이 포레스텔라의 가수 고우림과 결혼했다.”란 트윗과 함께 김연아의 결혼식 사진을 올렸다.



▲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김연아에게 결혼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사진=올림픽 공식 트위터

IOC는 홈페이지에서 “2010 밴쿠버 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 2014 소치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김연아가 지난 22일 성악가인 고우림과 서울 신라호텔에서 결혼했다.”며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은 김연아의 모습은 자신의 별명인 ‘아이스퀸’ 같았다.”고 밝혔다.



IOC는 김연아가 “좋은 사람을 만나 미래를 약속하게 돼 어제 많은분의 축복 속에서 예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축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축복을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겠습니다.”고 SNS에 올린 감사인사도 전했다.

아울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최종 점화자였던 김연아는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공식 홍보대사다.”며 “다음 세대에 올림픽 가치를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연아는 1990년생으로 고우림(1995년생)보다 5세 연상이다. 세계에서 역대 최고로 평가받는 여성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은퇴 이후에는 후배 양성과 홍보 및 광고 모델 활동을 하고 있다. 고우림(27)은 2017년 JTBC 프로그램 ‘팬텀싱어2’에서 ‘포레스텔라’를 결성해 우승한 뒤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세계 10위 한국 국적 주니어 테니스 선수

한국 국적의 주니어 테니스 선수 가운데 세계랭킹이 가장 높은 선수가 있다. 바로 낮은이름의 제라드 캄파나리 선수이다.



▲ 이덕희 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에 참가한 제라드 캄파나리 선수가 강력한 포핸드스트로크를 구사하고 있다. 사진=tennispeople.kr

제라드 캄파나리는 아버지가 스페인 사람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이다. 그의 세계랭킹은 10위로 한국 국적 선수 가운데 가장 높다.

제라드 캄파나리는 한국 주니어 대표로 경기를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이에 16살이던 2년 전, 대한테니스협회에 한국 주니어 대표로 뽑힐 수 있는지 문의를 했다. 그가 들은답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하고 입상해야 하고 한국 내 랭킹을 가지고 있어도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주니어 대표로 뽑히기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늘 한국 무대에서 경기하는 것을 꿈꾸었다. 그리고 마침내 2년 만에 개막한 이덕희배 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22)를 통해 꿈을 이뤘다.

1번 시드를 배정 받은 캄파나리는 지난 25일 춘천 송암테니스장에서 열린 단식 1회전에서 한국 랭킹 14위 김주안(부천GS)을 상대로 6-1, 6-0으로 완승했다.

승리 후 제라드 캄파나리는 취재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 무대를 밟을 수 없었다.”며 “드디어 이 멋진 대회를 통해 한국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경기하는 게 꿈이었다. 한국에서 ITF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행복하다.”며 “한국 음식과 문화를 좋아한다. 특히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제라드 캄파나리가 한국 주니어 테니스 대표로 선발돼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하는 날이 돌아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테니스 여제’ 윌리엄스 “은퇴 생각한 적 없어”



▲ 지난 8월 열린 US오픈에서 공격을 성공해 기뻐하는 윌리엄스. 사진=finance.yahoo.com

23차례나 메이저 대회를 석권했던 ‘테니스 여제’ 세레나 윌리엄스가 코트 복귀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2일 ‘머니S’에 따르면 윌리엄스는 전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자신의 투자 회사 ‘세레나 벤처’의 홍보 컨퍼런스에서 “다시 (코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윌리엄스는 “나는 은퇴하지 않았다.”며 “코트의 복귀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은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윌리엄스는 은퇴 번복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해당 발언은 단순 ‘해프닝’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쟁을 위하지 않고 코트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면서도 “현재까지 은퇴 이후의 삶을 즐기고 있고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은퇴 이후의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윌리엄스는 지난 8월 에세이를 통해 “은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테니스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윌리엄스는 지난 8월 미국 패션 잡지 보그를 통해서도 은퇴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그는 지난 8월 열린 US오픈을 자신의 은퇴 전 마지막 대회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매 경기마다 관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았고 3회전에서 탈락 후 관중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윌리엄스는 1995년 프로로 전향해 4대 메이저 오픈(호주·프랑스·영국 윌블던·미국)을 23차례나 석권했다. 올림픽에서도 4차례나 금메달을 목에 걸며 ‘그랜드슬램’ (메이저 오픈 우승과 올림픽 금메달)도 달성했다.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Home Remodeling